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의 융복합적 관계

임은정¹, 이미향^{2*}

¹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nc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Eun Jung Lim¹, Mi Hyang Lee^{2*}

¹Professor Dep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24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대인관계능력은 3.36점, 임상실습스트레스는 2.80점, 임상수행능력은 3.48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으로 설명력은 26.4%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발시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material that can strengthen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by understanding the impact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linical stress have on clinical competence. Research was conducted on 242 students in the junior and senior years of college through structured surveys. Results showed that interpersonal competence accounted for 3.36 points, clinical stress accounted for 2.80 points, and clinical competence accounted for 3.48 point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linical compete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hereas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did not show any correlation. As factors that affect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atisfaction in relation to one's major were identified, and these factors had an overall explanatory power of 26.4%. Therefore,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hen we develop the clinical education program to increase the major-related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Clinical competence,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Mi Hyang Lee(haha@konyang.ac.kr)

Received February 22, 2019

Revised March 25, 2019

Accepted May 20,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이론과 임상실습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1]. 간호교육 중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교육으로 간호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다[2].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가치관, 태도 등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 전문직으로써의 역할과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교육과정이다[3]. 또한 간호대학생은 졸업 전까지 1,000시간가량의 임상실습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 의사, 간호사 등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2]. 간호하는 대상자는 다양한 사회, 문화,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1]. 또한 간호대학생은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병원행정직 등 다양한 직종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4]. 이런 대인관계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촉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5].

좋은 대인관계 능력은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중요하다[6]. 특히 간호사의 업무가 대부분 조직 내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대인관계능력이다[7]. 그러나 임상실습 중 환자 및 의료진과의 대인관계 갈등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높이는 원인으로 나타났다[8].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의 선행연구를 보면 임상실습만족도, 공감능력, 임상수행능력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4-6].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간호대학생 때 보다 더 많은 대인관계 갈등이 예측되므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확인하고 학부 교육과정에서부터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실습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을 의료현장에서 확인하고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의 어려움, 의료진 및 대상자와의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간호기술 및 수행능력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무력감으로 인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리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8-10].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긴장, 불안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11]를 말한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이라는 낯선 환경, 자신감 결여, 과도한 과제물, 전문지식부족, 이론과 실습의 차이로 인한 혼돈,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등으로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경험한다[8].

지속되는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이어져 학습에 대한 불안정과 집중력 감소를 가져와 학습능력저하 및 수행감소, 학업성취도 감소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상실습을 이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2].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선행연구를 보면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임상수행능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즉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에게도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측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전략 수립 및 수행은 질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기술을 통해 능숙하게 전문직 간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14]. 또한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임상간호를 수행하는 것이다[15].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은 졸업 후 간호사로의 적응을 높일 수 있다[16].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선행연구를 보면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대인관계능력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5,13,17-18].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으며[5,17-18],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은 낮았다[13].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필수역량인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실습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위치한 2개 대학교 간호학과 3, 4학년으로 총 242명으로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효과크기 .03 변수 8개로 설정하였을 때, 160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으며, 대상자의 설문지 응답의 불성실, 설문답변의 중심화경향을 고려하여 250부를 배포하여 총 242부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설문지 수거율은 96.8%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인관계 능력

Buhrmester & Leary [19]이 개발하고 Han & Lee [20]가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로 번역, 수정하여 대학생에게 맞게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도구로 총 41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하부영역은 관계형성 및 개시 문항 8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갈등 관리 6문항, 적절한 자기개방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 Lee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3이었다.

2.3.2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Beck & Sriavastava[21] 개발하고 Kim & Lee [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4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하부영역은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부담 4문항, 대인관계 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 Lee[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2.3.3 임상수행능력

Schwirind의 Six-Dimension scale을 기반으로 Lee 등[22]이 개발한 도구를 Choi [2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45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하부영역은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7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일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7-003-018)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5월-6월까지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하였고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작성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하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242명으로 연령은 21~30세가 176명(72.7%)으로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2.53±4.44세였다. 성별은 여자가 215명(88.8%)으로 많았고,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가 164명(67.8%)으로 많았다. 전공 만족도는 평균 3.83±0.71점,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 3.78±0.74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2)

Variables	Classification	N	%	M±SD
Age	≤20	57	23.6	22.53±4.44
	≤21~≥30	176	72.7	
	≥31	9	3.7	
Sex	Male	27	11.2	
	Female	215	88.8	
Health status	Good	164	67.8	3.83±0.71
	Moderate	75	31	
	Bad	3	1.2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168	69.4	3.78±0.74
	Moderate	67	27.7	
	Dissatisfaction	7	2.9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59	65.7	3.78±0.74
	Moderate	73	30.2	
	Dissatisfaction	10	4.1	

3.2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의 점수범위는 2.06~4.81점으로 평균 3.36±0.47점이었고,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점수범위는 1.04~4.25점으로 평균 2.80±0.53점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의 점수범위는 2.29~4.98점으로 평균 3.48±0.4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of the subjects (N=242)

Variables	Range	M±SD	Min	Max
Interpersonal competence	1~5	3.36±0.47	2.06	4.81
Clinical stress	1~5	2.80±0.53	1.04	4.25
Clinical competence	1~5	3.48±0.41	2.29	4.98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에서 전공만족도(F=8.55, p<.05), 임상실습만족도(F=3.5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그룹이 보통인 그룹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높았다. 또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았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F=3.52, p<.05), 임상실습만족도(F=14.78,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그룹이 만족과 보통인

Table 3.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42)

Classific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Clinical competence			
	M±SD	F/t	p	M±SD	F/t	p	M±SD	F/t	p	
Age	≤20	3.35±.50			2.70±.57			3.54±.49		
	≤21~≥30	3.36±.48	.29	.744	2.82±.52	2.05	.131	3.46±.39	.95	.388
	≥31	3.48±.47			3.04±.39			3.41±.29		
Sex	Mal ^a	3.50±.42	1.63	.104	2.71±.61	-.91	.366	3.46±.40	-.29	.769
	Femal ^a	3.35±.48			2.81±.52			3.48±.41		
Health status	Good ^a	3.40±.45	.90	.408	2.77±.54	2.03	.134	3.53±.41	4.51	.012 a>b,c
	Moderate ^b	3.31±.51			2.89±.50			3.37±.39		
	Bad ^c	3.29±.48			2.43±.70			3.21±.52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a	3.44±.47	8.55	<.001 a>b	2.78±.52	3.52	.031 c>a,b	3.56±.42	12.17	<.001 a>b,c
	Moderate ^b	3.16±.38			2.79±.54			3.29±.33		
	Dissatisfaction ^c	3.26±.92			3.32±.63			3.24±.16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	3.41±.47	3.52	.031 a>b>c	2.68±.54	14.78	<.001 c>b>a	3.52±.44	3.31	.038 a>c
	Moderate ^b	3.29±.45			2.97±.41			3.41±.36		
	Dissatisfaction ^c	3.07±.71			3.38±.45			3.28±.21		

그룹보다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았고 임상실습만족도가 불만족인 그룹이 보통과 만족인 그룹보다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건강상태($F=4.51, p<.05$), 전공만족도($F=12.17, p<.05$), 임상실습만족도($F=3.3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그룹이 보통이다와 나쁘다 그룹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 그룹이 보통과 불만족 그룹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고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그룹이 불만족 그룹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Table 3 참고).

3.4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실습수행능력간의 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488, p<.05$), 대인관계능력과 임상실습스트레스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N=242)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r(p)	
Clinical competence	.488 ($<.001$)	.051 (.433)

3.5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대인관계능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가 1.702로 나타나 자기상관성 없이 독립적이었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간 VIF 지수는 1.000~1.071로 기준치인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대인관계능력, 전공만족도가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며 26.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대인관계능력($\beta=.44$)이 가장 큰 설명력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공만족도($\beta=.19$)로 나타났다(Table 5 참고).

Table 5.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N=242)

	B	SE	β	t	p
Interpersonal competence	.37	.05	.44	7.62	$<.001$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17	.05	.19	3.35	.001

$F=44.12, p<.001, R^2=.270, Adj.R^2=.26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 중 3.36점으로 본 연구와 다른 도구지만 Chae [24]의 연구 3.59점, Yang [5]의 연구 3.81점, Jeong & Lee [25]의 연구에서 3.57점으로 본 연구결과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모두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 본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이 낮은 원인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5점 만점 중 2.80점으로 나타났으며 Kim & Lee [8]의 연구에서 3.33점, Kim & Cha [26]의 연구에서 3.13점, 본 연구와 다른 도구지만 Yu [13]의 연구 3.25점, Kim [9]의 연구 3.91점으로 본 연구결과가 낮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 중 3.48점으로 나타났으며 Choi [16]의 연구에서 3.43점, Yang [5]의 연구에서 3.49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다른 연구에 비해 대인관계능력과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임상수행능력정도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은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ae [24]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 뿐만 아니라

공감역량, 자아탄력성도 높아지므로[27] 임상실습 전 1, 2학년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8, 9, 13]. 또한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향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업무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과와 의료기관의 간호부는 지속적으로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임상실습에서 롤모델인 간호사들의 업무만족도가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간호대학생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만족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습학생들의 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였다[5, 9, 13]. 즉 간호대학생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및 실습만족도의 그룹간 대상자수의 차이가 커서 이를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그룹간 대상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추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ang [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다양한 환자 및 보호자, 다양한 보건의료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대인관계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대인관계능력이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고 간호사 대부분이 업무와 관련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8] 간호대학생때부터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이 임상수행능력을 26.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확인되었다. Yang [5]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대인

관계능력, 전공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을 4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 등[18]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학과지원동기,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가 임상수행능력을 4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보다 선행연구에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대인관계능력보다 다른 변수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며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양한 것으로 예측된다. Yang [5]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 Kang 등 [18]의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간호학과 교수들은 전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할극 등을 접목할 수 있는 수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전 다양한 임상현장에 대한 역할극,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서 환자 및 보건의료진들 사이에서 발생가능한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해결역량을 높여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소재하는 간호대학생을 임의 표본 추출하였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교수들의 다양한 교육방법과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임상실습 전까지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역할극 체험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는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임의 표집으로 조사하여 선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그 결과 대인관계능력과 임상수행능력은 양의 상관관계이며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능력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전공만족도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는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교육은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수들의 다양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은 간호대학생의 미래 모습인 간호사들의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임상실습 전까지 다양한 역할극 및 시뮬레이션 훈련 등을 통해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효과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S. Cho. (2005).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2), 222-23.
- [2] K. E. Lee, N. S. Ha & S. Y. Kil.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3), 571-583.
- [3] S. J. Han. (200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132-146.
- [4] H. W. Kwak & J. E. Yi. (2016).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147-155. DOI : 162/KAIS.2016.17.2.147
- [5] Y. K. Yang. (2018).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5(2), 99-108. DOI : 10.7769/jkafn.2018.25.2.99
- [6] Y. E. Kwon, S. Y. Kim. (2019).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967-981. DOI : 10.22251/jlcci.2019.19.3.967
- [7] H. E. Peplau. (1997). Peplau's theor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ursing Science Quarterly*, 10(4), 162-167.
- [8] S. L. Kim &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9] H. S. Kim. (2002).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6(1), 64-76.
- [10] Y. S. Song. (2018).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4), 406-414. DOI : 10.5977/jkasne.2018.24.4.406
- [11]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12] I. S. Kim, Y. K. Jang, S. H. Park & S. H. So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37-345.
- [13] H. S. Yu. (2015).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2), 1129-1144.
- [14] C. Barrett & F. Myrick.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2), 364-371.
- [15] J. Lee-Hsieh, K. Chihui, K. Chienlin & H. F. Tseng. (2003).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RN-to-BSN students in a nursing concept-based curriculum in taiwa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2(12), 536-545.
- [16] E. H. Choi.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1), 15-21.
- [17] J. J. Yang. (2009).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159-165.
- [18] H. S. Kang, Y. Y. Kim & H. S. Lee. (2018).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3), 389-398. DOI : 10.5762/KAIS.2018.19.3.389
- [19] R. F. Baumeister & M. R. Leary.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20] N. R. Han & D. G. Lee. (201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 [21] D. L. Beck & R. Srivastava. (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127-133.
- [22] O. H. Lee, J.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 O. M. Im. (1990). Development of clinical performance measurement tools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Yonsei University*, 50(13), 17-29.
- [23] M. S. Choi.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24]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DOI : 10.5762/KAIS.2016.17.5.95
- [25] H. S. Jeong & K. L.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5-2647.
- [26] M. O. Kim & J. A. Cha. (2018).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fter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nursing ima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9), 247-256.
DOI : 10.14400/JDC.2018.16.9.247
- [27] M. S. Chung. (2014). Relations o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reinforcing competence in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332-340.
DOI : 10.5977/jkasne.2014.20.2.332
- [28] H. J. Kwon, H. S. Kim, G. S. Choi, K. S. Lee & Y. H. Sung. (2008). A study on verbal abuse experienced at medical center.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3(2), 113-124.

이 미 향(Lee, Mi Hyang)

[정회원]



- 1998년 2월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4년 2월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환자안전
- E-Mail : haha@konyang.ac.kr

임 은 정(Lim, Eun Jung)

[정회원]



- 2007년 2월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14년 2월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초간호, 응급간호
- E-Mail : ejlim@dst.ac.kr